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회사채시장 동향 및 전망

유럽 주요국의 2차전지 생산라인 구축 동향

## 북한포커스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현황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회사채시장 동향 및 전망 .....	1
유럽 주요국의 2차전지 생산라인 구축 동향 .....	5

## 북한포커스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현황 .....	8
-------------------------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1
--------------------	----

# 회사채시장 동향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유나 (ynrhee@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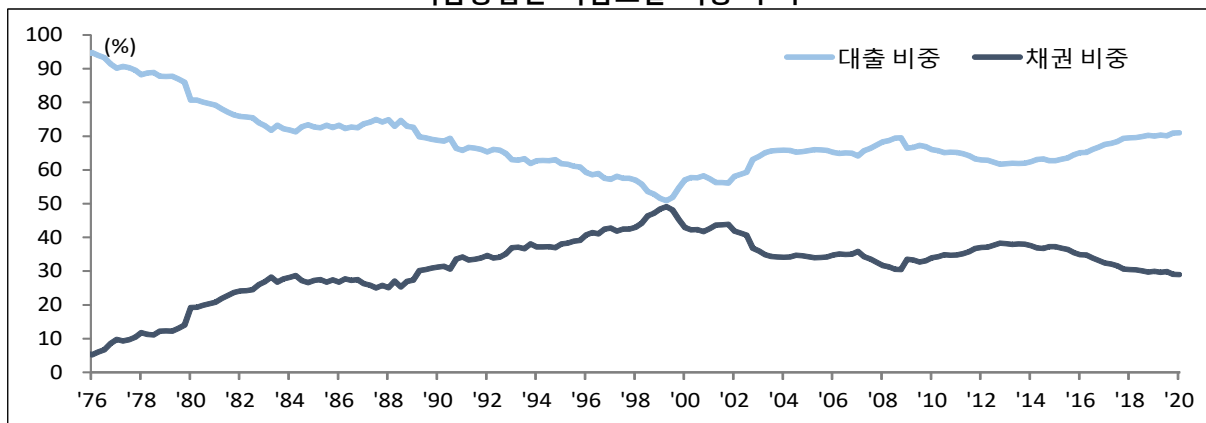
- ◆ '20년 회사채 발행시장은 전년에 이어 순발행 지속 추세이며, 신용스프레드는 3~4월 중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우량등급 중심으로 안정화
  - 다만, A- 등급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용등급별 양극화 상황
- ◆ 향후 회사채시장은 저금리 지속 등 우호적인 발행환경과 코로나19 경계감 속에서 우량등급 위주의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는 제한적인 축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3월말 국내 비금융법인의 자금조달 규모는 1,916.4조원으로, 이중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9.0%, 대출은 71.0%를 차지

- '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법인(공기업+민간기업)의 회사채 자금조달 비중\*은 '12년말(38.3%)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서 국내 비금융법인의 채권 잔액/(채권+대출금 잔액)

비금융법인 자금조달 비중 추이



주 : 채권은 단기(기업어음 등) 및 장기 채권 포함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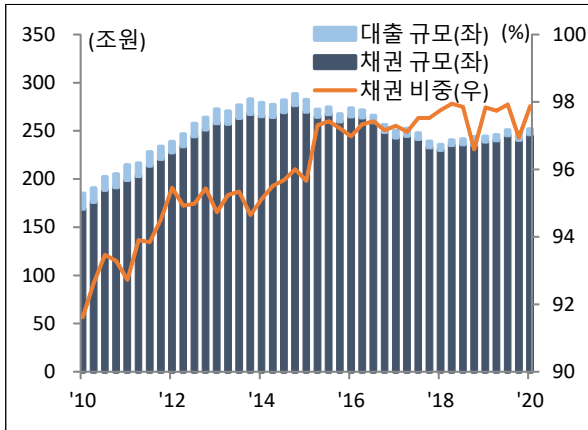
- 기업형태별로 보면 공기업은 대부분 회사채를 통해, 민간기업은 거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양상

- 공기업\*의 회사채 조달비중은 '10년말 93.3%에서 '20.3월말 97.9%로 확대된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10년말 22.6%에서 18.6%로 축소

\* 공기업 채권 규모 추이(조원) : ('10년말) 191.4 → ('15년말) 259.9 → ('20.3월말) 2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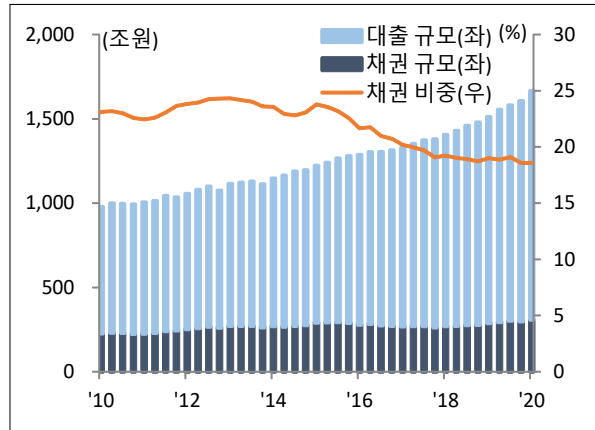
\*\* 민간기업 채권 규모 추이(조원) : ('10년말) 223.9 → ('15년말) 288.4 → ('20.3월말) 309.2

공기업 자금조달 추이



주 : 채권은 단기(기업어음 등) 및 장기 채권 포함  
자료 : 한국은행

민간기업 자금조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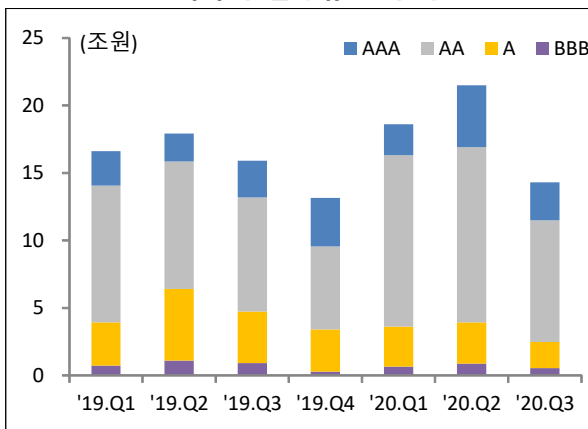


주 : 채권은 단기(기업어음 등) 및 장기 채권 포함  
자료 : 한국은행

□ '20년 회사채시장은 순발행 지속 추세이며, 신용스프레드는 3~4월 중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우량등급 중심으로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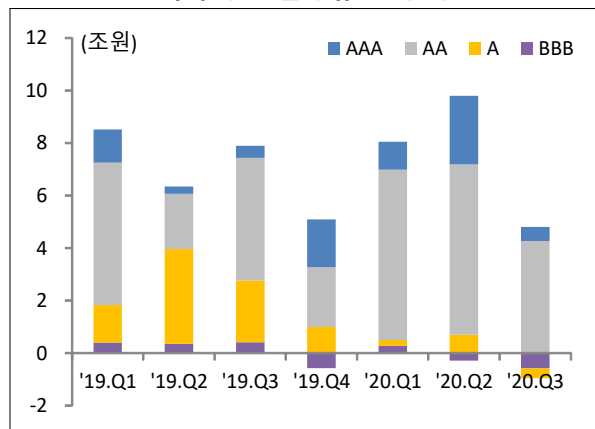
- '20년 회사채 발행시장은 저금리 기초,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순발행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특히 AA 이상 우량등급의 순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
  - '20.1~3분기 중 AAA 및 AA 등급의 순발행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2조원 및 5.0조원 증가
  - 이에 반해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 회사채 위주의 선별적 투자수요로 인해, BBB 등급은 2분기부터, A 등급은 3분기부터 순상환으로 전환

회사채 발행규모 추이



주 : '20.3분기는 '20.7.1~9.18일  
자료 : 코스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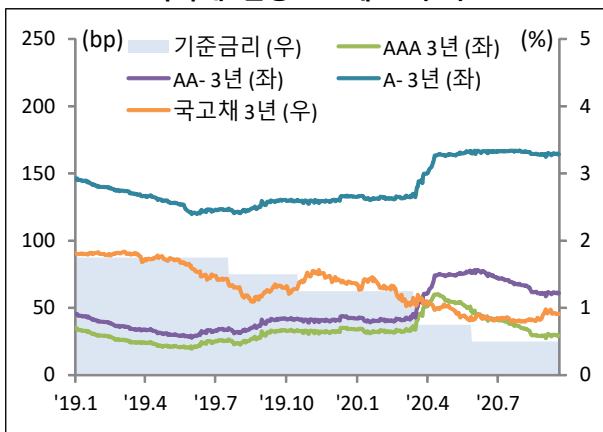
회사채 순발행규모 추이



주 : '20.3분기는 '20.7.1~9.18일  
자료 : 코스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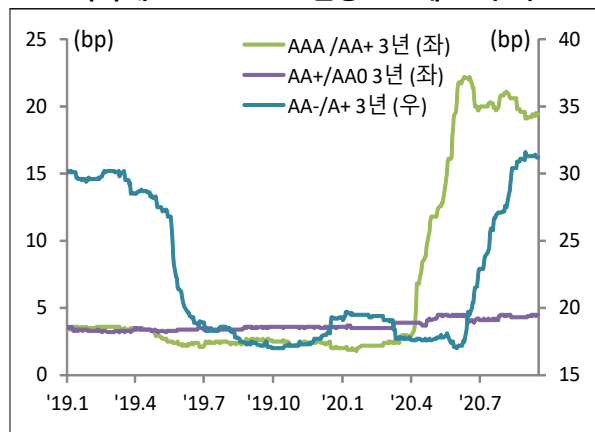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는 3~4월 중 큰 폭 확대 이후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상위 등급을 중심으로 점진적 축소
  - 3월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시장 내 공포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현금확보 수요가 급증하는 등 투매양상이 확대되고 회사채 역시 급격한 약세(금리 상승) 진입
  - 이후 통화 및 금융 정책대응으로 AAA 등급\* 신용스프레드는 축소 전환 후 연초 수준을 회복하였고, AA- 등급\*\* 역시 완만히 축소
  - \* AAA 신용스프레드(bp) : ('20.2월말) 32.3 → (3월말) 51.0 → (4월말) 55.0 → (6월말) 41.5 → (9.23일) 28.5
  - \*\* AA- 신용스프레드(bp) : ('20.2월말) 40.9 → (3월말) 60.5 → (4월말) 75.1 → (6월말) 72.7 → (9.23일) 60.2
  -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등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신용시장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우량 및 비우량 등급간 회사채 투자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되는 모습
  - A- 등급\*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3~4월 중의 확대세는 멈추었으나 연초 대비 30b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 A- 신용스프레드(bp) : ('20.2월말) 131.6 → (3월말) 149.9 → (4월말) 164.4 → (6월말) 166.7 → (9.23일) 163.1
  - 작년 하반기부터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AAA 및 AA 등급과 AA 및 A 등급 간 신용스프레드는 올해 중순 무렵부터 가파르게 확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회사채 One notch 신용스프레드 추이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향후 회사채 발행시장은 우량등급 위주의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는 제한적인 축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정책지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우호적인 회사채 발행 여건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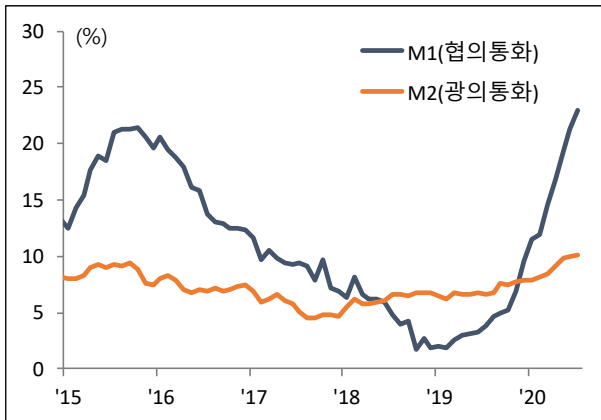
\* 9.18일 기준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정책지원 실적(목표 금액) :

- ① 증권사 유동성 지원 7.3조원(5.0조원), ②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3.0조원(20.0조원),
- ③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 2.3조원(6.1조원), ④ 코로나 피해 P-CBO 1.9조원(11.7조원),
- 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지원 1.3조원(20.0조원)

(자료 : '20.9.23일, '20.7.2일 금융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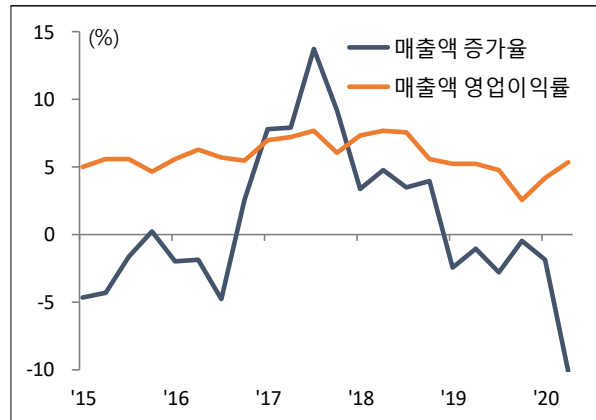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계감 등이 투자심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이는 상위 신용등급 위주의 투자수요를 유발하여 현재의 회사채 양극화 현상을 지속시킬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통화량 증가율 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 평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확대 가능성이 있겠으나 국고채 수익률 대비 투자 매력, 회사채 지원정책 등의 요인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인 축소 예상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백신·치료제 개발과 보급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크나,
- 저신용 회사채 지원 등 정책이 회사채 투자의 안정적 흐름과 등급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유럽 주요국의 2차전지 생산라인 구축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영진 (phibron@kdb.co.kr)

- ◆ 유럽 주요국에서 전기차 핵심부품인 2차전지에 대한 한·중·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터리 자체 생산공장을 건설 중
- ◆ 단시간 내 유럽 후발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겠으나,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Supply-Chain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 필요

## □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

- 세계 배터리 제조 상위 10개사는 모두 한·중·일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한·중·일 의존도 심화
  - 10개사 점유율 : '17년 69% → '18년 81.2% → '19년 86.9% → '20년 93.9%
- 2019년까지는 테슬라에 독점 공급한 일본 파나소닉과 거대한 내수 전기차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 CATL이 2강을 형성
  -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공격적인 생산라인 증설 및 우수한 품질 기반의 수주량 확대로 2020년부터는 LG화학이 사용량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 추세

세계 전기차용 이차전지 사용량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순위	업체명	점유율	순위	업체명	점유율	순위	업체명	점유율
1	CATL(中)	21.9%	1	CATL(中)	27.9%	1	LG화학(韓)	24.7%
2	파나소닉(日)	21.4%	2	파나소닉(日)	24.1%	2	CATL(中)	23.4%
3	BYD(中)	12.0%	3	LG화학(韓)	10.5%	3	파나소닉(日)	20.4%
4	LG화학(韓)	7.6%	4	BYD(中)	9.5%	4	삼성SDI(韓)	6.1%
5	AESC(中)	3.8%	5	삼성SDI(韓)	3.6%	5	BYD(中)	6.0%
6	Farasis(中)	3.4%	6	AESC(中)	3.3%	6	SK이노베이션(韓)	4.0%
7	Guoxuan(中)	3.3%	7	Guoxuan(中)	2.7%	7	AESC(中)	3.9%
8	삼성SDI(韓)	3.1%	8	PEVE(日)	1.9%	8	PEVE(日)	2.1%
9	Lishen(中)	2.8%	9	Lishen(中)	1.7%	9	CALB(中)	1.8%
10	EVE(中)	1.9%	10	SK이노베이션(韓)	1.7%	10	Guoxuan(中)	1.5%
계		81.2%	계		86.9%	계		93.9%

자료 : SNE리서치

□ 환경이슈 등으로 전기차 수요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국들은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한·중·일 의존도 심화에 대응해 자국내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적극 추진 중

-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총 60억유로(약 8조원)을 투입해 ‘에어버스 배터리\*’ 프로젝트 추진 중
  - \* 과거 유럽 주요 국가가 공동 출자해 성공시킨 항공기제작사 ‘에어버스’를 인용
  -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Total)의 계열사 사프트(SAFT)가 프랑스 최대 완성차 업체 PSA그룹의 계열사 오펠(OPEL)과 함께 합작회사(ACC\*)를 설립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 \* ACC : Automotive Cell Company
  - 2021년 프랑스에 배터리 파일럿공장(1GWh)을 건설하고, 2023년 프랑스(24GWh)와 독일 오펠공장(16GWh)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예정
  - 이외에도 프랑스의 배터리 스타트업 베르코어(Verkor)는 2022년 16GWh 규모의 배터리공장을 건설하여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할 계획(향후 50GWh까지 증설 예정)
  - \* 베르코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글로벌 에너지 관리기업), IDEC그룹(프랑스 부동산기업), EIT이노 에너지(독일 에너지기업) 투자 업체
- 영국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터리 스타트업 중심으로 대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
  - AMTE파워와 브리티시볼트는 40억파운드(약 6조원)를 투입해 사우스웨일스의 옛 공군기지에 영국 최초의 배터리공장 건설을 추진 중
  - 총 30GWh 규모를 3단계로 나누어 건설되며, 1단계는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및 양산할 계획
  - 영국 정부 산하의 첨단추진시스템기술센터(APC\*) 지원을 받아 진행 중
  - \* APC(Advanced Propulsion Centre) : 영국 정부가 저탄소 자동차산업 중심국이 되기 위해 관련 부품의 R&D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기관
- 독일은 폭스바겐 등 완성차업체 주도로 배터리 생산공장 구축 중
  - 독일 폭스바겐은 스웨덴 노스볼트\*와 합작으로 독일 북부 잘츠기터 지역에 16GWh 규모의 배터리공장 건설 중이며 2023년 양산할 계획
  - \* 노스볼트는 폭스바겐과의 합작 생산공장 외에도 자체적으로 스웨덴 베스트레보텐주 셀레프테오 지역에 40GWh 배터리공장 건설 중

- 폭스바겐은 2021년까지 8억달러를 투입,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 공장을 확장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셀·팩의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배터리연구소를 설립할 계획
- 폭스바겐 계열인 포르쉐는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용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독일 배터리 생산업체 커스텀셀즈(Customcells\*)와 합작사 셀포스그룹(Cellforce Group)을 설립하여 튀빙겐 지역에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중이며, 유럽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IPCEI\*\* 등록을 추진 중

\* 2012년 설립된 특수 리튬이온배터리셀 개발 전문 회사

\*\*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유럽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

- 에어팟, 보청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 제조사인 바르타(Varta)는 독일 정부 등으로부터 3억유로(4,200억원)를 지원받아 전기차용 배터리셀 연구개발 진행 중(IPCEI 등록료)

○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스 등 적극적인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도 배터리 생산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

-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70%)인 노르웨이의 배터리 스타트업 프레위르(Freyr)는 32GWh 규모 배터리공장을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
- 스위스 배터리 스타트업 이놀리스(Innolith)는 2017년 파산한 미국 배터리업체 알레보(Alevo)를 인수하여 NCM811 양극재를 채택한 배터리 시제품 개발 중
- 그리스 선라이트(Sunlight)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

**□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Supply-Chain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 필요**

- 2000년대 초부터 양산을 시작해 원천기술 및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유럽 신생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단시간에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유럽 주요국이 전기차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제조사도 차세대·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주요 원자재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Supply-Chain 구축 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최재현 (jaeheun@kdb.co.kr)

- ◆ 북한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권,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규 행정조직 신설 및 거래소 활성화 등 보호사업 강화
- ◆ 발명자 개인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발명 의욕 고취에는 한계
- ◆ 향후 남북간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의 상호 등록절차 협의 등 지적소유권 관련 교류 활성화 필요

### □ 지식경제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소유권 중요성 강조

-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가입
  - 한국보다 5년 앞서 1974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
  - '80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03년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
-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특허 개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제품'\* 거래 장려
  - \* 사람의 창조적 정신노동에 의해 이룩된 무형의 지적재산으로서 발명권·특허권·창의고안 등(노동신문 인용)
  - 北 발명총국, '14년 6월 '지적제품전시장'을 개장하여 우수 지적제품 홍보, 유통 계약 체결, 발명등록 등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매년 국가발명전람회('17년 이전, 전국 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개최
  - \*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18.8월, 과학기술전당)에 1,000여건의 발명·특허권 취득 기술이 참가

#### 국가발명전람회(내부, 외부전경)



자료 : 연합뉴스('18. 8.3자), "北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 개최"



자료 : 연합뉴스('16.1.22자), "北 '세계 최상급' 과학기술 전당에 어떤시설 있나"

□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 및 거래소 활성화 노력

- '19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인 '지적소유권국'을 신규 설치
  - \* 북한선전매체 '내나라'(19.8.18자),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
- 특허, 상표를 비롯한 지적소유권 신청 및 등록을 대리하는 평양지적자원교류소 (Pyongyang IP Center)의 업무량이 매년 증가
  - \* 통일뉴스(18.1.22자), "북, 특허권 등록관심 높아져...평양지적자원교류소 업무 활발"
- 발명법·공업도안법·상표법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법 관련 법을 수정·보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현상을 막기위한 감독·통제사업도 강화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비교

구분	사용 용어	관련 법령	
		한국	북한
발명	발명 (북) 특허 (남북)	특허법	발명법
고안	실용신안 (남) 창의고안 (북)	실용신안법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디자인	디자인 (남) 공업도안 (북)	디자인보호법	공업도안법
상표	상표	상표법	상표법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12)

□ 발명가 개인의 실질적인 재산적 권리행사가 어려워 한계도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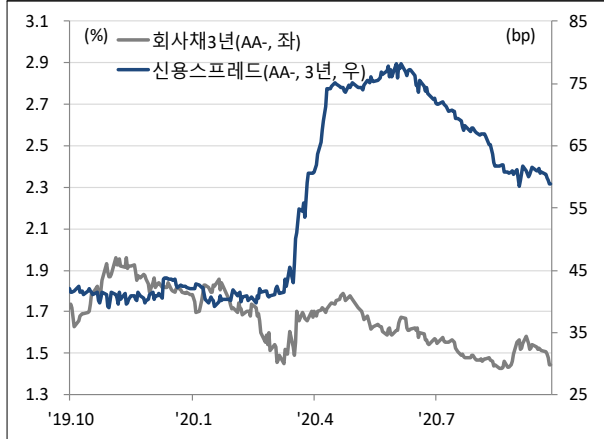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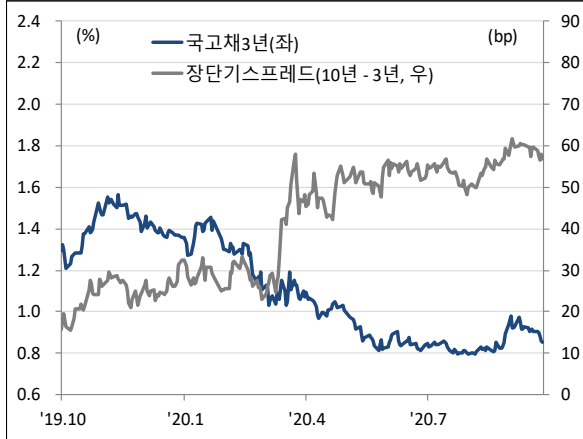
- 北 발명공보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기업에게 재산권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 출원이 93.7% 차지, 국제 특허출원 건수도 매우 미미한 수준
  - \* 北 발명법(14년 개정)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이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이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15년이다"
  - '09~'18년중 국가과학원, 김책공대 등에서 출원한 발명은 14,024건에 이르나 재산권이 개인 등에게 주어지는 특허는 794건에 그쳐 발명의욕 고취에 한계
  - 국제 특허출원 건수도 매년 10건 미만에 불과 (한국 '18년 중 17,000건)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5.28자),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 인용
- 北 국내 특허법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특허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남북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필요

- 남북 모두 상표와 특허출원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인 북한 내 등록은 매우 제한적임
  - 한국상표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 신세계 등은 중국, 홍콩 등 제3국 법인을 통해 북한에 상표등록 중
  - 북한 개인의 한국특허 출원 및 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실적은 거의 없음
- \* 대한변협신문('18.7.2자), "남북교류와 북한의 지식재산권"
- 남북 상호간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 필요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합의를 맺고 국내 방송사 사용 북한TV 영상, 북한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 법원공탁 중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상호 등록절차 관련 협의 필요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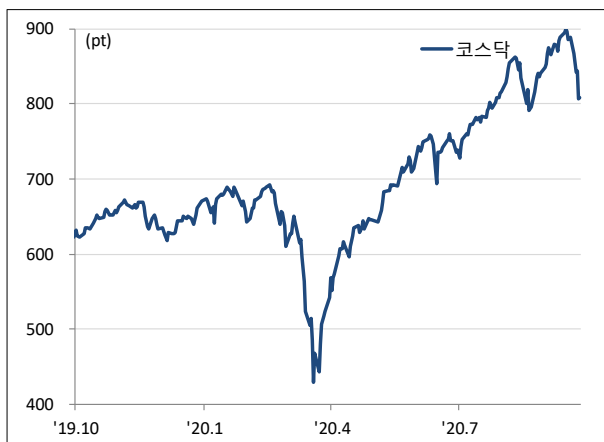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855% (5.2bp ↓), 신용스프레드 58.8bp (2.0bp ↓)



**환율** 원/달러 1,172.3원 (12.0원 ↑), 엔/달러 105.60엔 (1.03엔 ↑)



**주가** 코스피 2,278.79pt (5.54% ↓), 코스닥지수 808.28pt (9.07%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97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http://rd.kdb.co.kr), [kdb.co.kr](http://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